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8호 【루게 제23020호】주체99(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미 당파를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이 강행하려는 범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들이치기 위한 선형침략전쟁연습, 핵시형침전연습으로 락인하고 무분별한 이 전쟁연습을 당장 견어치울것을 강력히 로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3월 8일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날 비상발령과 동시에 남조선과 해외에 기지를 둔 미제침략군의 방대한 무력이 기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조선피괴핵제공과 지방행정기관,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경찰, 군수 및 민수업체들이 일시에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갔다.

침략전쟁연습에 앞서 미제는 조선동서남해에 유도탄구축함, 핵동력잠수함, 도크상륙함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함선집단을 기동전개시켰으며 이 함선집단들은 남조선피괴해군 1, 2, 3함대들과의 협동됨에 련합해상기동연습, 상륙작전연습, 해상대침투연습에 돌입할 태세에 있다.

일본의 기지들로부터 전투특격기, 추격속격기들이 떼어 날아들고있으며 남조선강점 미제 7항공군 비행대들이 피괴공군 비행대들과의 협동하에 중심대상물집중타격, 근접항공지원, 공중전투, 해상지원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리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강행되고있는 이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은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의 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도 함흥방이 전례없는 격정과 환희의 분위기로 끓어번졌고 비날론영웅들을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하늘향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이 비날론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2. 8비날론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꾼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을 수여하도록 하시는데 이어 군중대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승중한 애국적인 신성,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함흥시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이것은 오늘의 가장한 대고조시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히 아로새겨질 대일이 의의깊은 력사적사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새로운 폭풍을 불러오는 위대한 승리의 리징표로 된다. 뜻깊은 대회의 주석단에서 눈발을 맞으시며 대회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보내시는 위대한 선군혁명의 승업한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인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실현하시는데 절세의 위인의 승고인 애국의 호소를 뜨겁게 새겨안았으며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장군님께서 정치신 통성변영의 대진성기를 끝없이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축복을 받아안은 비날론로동계급과 함흥시민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는 뜨거운 총정과 새로운 비약의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을 넘쳐 초승달을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이번 군중대회에는 비날론공장건설에 참가하였던 2. 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영웅로동계급과 각지의 건설자들, 함흥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비날론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

함흥시군중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실천으로 빛내인 비날론로동계급의 고결한 총정과 도덕의리의 대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인 비날론공장의 개척자, 창설자이시며 한평생 나라의 자립적공업을 토대의 축성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불비속에서 승리한 조국의 패일을 날대보시고 비날론연구를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강해주시였으며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대만이 무성하던 용흥벌에 나오시어 몸소 비날론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모든것을 비날론공장건설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태웠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웅대한 비날론공장이 일떠서 비날론공장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의 준공,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비날론공정건설사상의 대승리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비날론로동계급의 고결한 총정의 정화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비날론로동계급과 시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최후승리를 기쁘게 보고를 올리였으며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2. 8비날론연합기업소가 현대적인 청춘공장으로 일선되어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설하신 비날론공장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비날론력을 보게 하시려고 불멸불후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드디어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다.

함흥시군중대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천만민들의 철석같은 의지를 파시한 일심단결의 대회이다. 이번 군중대회에는 비날론공장건설에 참가하였던 2. 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영웅로동계급과 각지의 건설자들, 함흥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비날론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

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건설장으로 달려온 그들은 혁명적근인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하나의 대화기지를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방대한 건설공사를 불과 몇달만에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로부터 가두의 념성들까지 떨쳐나 헌신적인 투쟁으로 안아온 온 나라의 대경사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준엄과 불배성의 상징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목청껏 만세를 웨친 대회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모습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 일체를 이룬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대서사적화폭이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목숨처럼 받들어나가는 일심단결이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선언한 바로 여기에 함흥시군중대회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함흥시군중대회는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려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기개를 시위한 력사적인 대회이다. 비날론로동계급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허리띠를 조이며서도 귀중한 소비들을 지켜내었으며 당의 전투적소과파 결사의 투쟁을 벌려 인민생활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진자배기영웅들이며 애국자들이다. 2. 8비날론연합기업소가 현대적인 대화기지가 전전됨으로써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수 있는 확고한 전방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의 비날론띠심유와 비날론술, 음악과 물감을 비롯한 갖가지 화학제품들이 광활 쏟아져 나오게 되것은 우리의 전진을 달가와 하지 않는 온갖 원수들의 뒤포수를 호되게 후려치기 위하여 새로운 원지탄을 쏘것과 같은 투대형사변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축성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 우리 주체공업의 토대와 잠재력은

대단하다.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이 일떠서 생산을 시작할것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무수히 솟아나고있는것이 우리 주체공업의 자랑한 현실이다. 우리는 그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배짱, 당의 대고조사상을 받들어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사의 의지, 이것이 대회장에 맥박친 혁명적열정이었고 드높은 각오였다. 비날론로동계급과 같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제 인민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역세를 싸워나가기에 우리의 대고조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번영의 광활한 직선주르가 펼쳐져있으며 우리 조국의 전진과 비약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받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가 펼쳐진 선 천만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비길데 없이 높다. 온 세상을 들끓게 다놓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비날론기적, 우리 식 사회주의의 대승리는 당의 전투적소과파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다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준 력사적기대로 된다.

우리는 이번에 함흥시군중대회장에 차넘치던 드높은 혁명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모든 전선에서 선군조선의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 하는 해,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는 해로 빛내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과 락관을 넘쳐 혁명의 수뇌부뒤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정해주시고 새해 정초부터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오늘날의 총진군을 전투에서 이끌고 계신다.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옹위하자라는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진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심정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강으로 높여야 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보폭으로 이어져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장군님의 사상과 리상을 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전에서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길 비날론로동계급의 영웅적 투쟁기풍으로 모든 전선에서 끊임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아가야 한다. 2. 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꾼들은 당의 요구라면 천만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비길데 없이 높다. 온 세상을 들끓게 다놓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비날론기적, 우리 식 사회주의의 대승리는 당의 전투적소과파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다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준 력사적기대로 된다.

우리는 이번에 함흥시군중대회장에 차넘치던 드높은 혁명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모든 전선에서 선군조선의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 하는 해,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는 해로 빛내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과 락관을 넘쳐 혁명의 수뇌부뒤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의 빛나는 불배의 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장과 김철, 주체적인 화의 근부담보는 일꾼들과 당조직들의 계속 앞장서야 한다.

오늘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승리의 근부담보는 일꾼들과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활에 달려있다. 모든 일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명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불철주야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고있는 데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 대담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일꾼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모든 일을 정성이나 번쩍 틀게 해제끼는 통이 크고 용감부쟁한 실천가, 높은 사업전개능력도 도처에서 세상을 들끓게 하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우리 힘으로 모든것의 패권을 쥐려는 비상한 애국의 열정이 융양처럼 끓어넘쳐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적진을 힘있게 다위쳐나가는데서 비날론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2. 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념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더욱 열어나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적,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경공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대국을 앞당겨야 한다. 또 총체적 생산하며 사회주의혁명봉파마다에 풍요한 오곡백과를 펼쳐놓아야 한다. 인민경제 4대은행부문의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높은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며 편만된 모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2. 8비날론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전기와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충실히 보장해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자력갱생과 첨단과학의 기지를

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군중문화에출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마다에 혁명적기백과 만량이 차넘치게 하며 일터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데서 계속 앞장서야 한다.

오늘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승리의 근부담보는 일꾼들과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활에 달려있다. 모든 일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명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불철주야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고있는 데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 대담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일꾼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모든 일을 정성이나 번쩍 틀게 해제끼는 통이 크고 용감부쟁한 실천가, 높은 사업전개능력도 도처에서 세상을 들끓게 하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우리 힘으로 모든것의 패권을 쥐려는 비상한 애국의 열정이 융양처럼 끓어넘쳐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꾼들은 혁명의 총풍기, 가속기가 되어 생산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적지사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로동보호사업과 후방사업에 힘드는 관심을 돌려 우리 당이 나라의 보배로 여기고 아끼는 비날론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중요전선들을 맡고있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좋은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격진장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한 로력적 위훈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3. 8국제부녀절 10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3. 8국제부녀절 10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8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모교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에는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호보위하자!》,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 념성의 영웅적기개를 떨치자!》라

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국제부녀절 100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형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원동지와 박명선 내각부총리, 근로단체책임일꾼들, 항일혁명투사들, 념성일꾼들과 념성로력혁신자들, 념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는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녀성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념성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로성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동력진을 과감히 벌려나가기라는 격동적인 시기에 3. 8국제부녀절 100돐을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국제부녀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온갖 시배와 예측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의 단결과 연대성이 강화되었으며 념성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나라 념성운동이 영웅적사변과 세기적변혁들로 충만된 조국선명의 불길속에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가부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념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념성운동에 관한 독자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념성문제는 오직 인민대중의 자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시한 해결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념성들의 사회적적책임을 이룩하는것을 중요한 력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새혁의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독자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불초불굴의 혁명투사 강만석어머니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첫 념성혁명조직인 반일부녀회를 결성하시므로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시원이 열리고 우리 념성들이 조직에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을 무장투쟁과 결합시키는데서 위대한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신 항일의 념성영웅 김점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시어 광범한 로력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결결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녀성운동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끌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후 우리 나라 념성들의 대중정치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여 주시였으며 남녀평등권행명을 몸소 작성할로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커다란 기쁨을 안고 각하께 트란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각하께서 앞으로도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귀국과 조선인민을 단결과 평화, 번영으로 향도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혁명업무를 완성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각하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가기에 트란다정부와 나자신의 결집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하는바입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트란다공화국 대통령

뵐 까 가 메

2010년 2월 10일 **끼 갈 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서 행복하시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나는 조선인민의 진보와 복리를 위한 각하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 신포스

2010년 2월 16일 **루 안 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제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

원회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제히-모라바공산당은 일국세계의 현 복잡한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적발전을 위한 당의 장기간에 걸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들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없는 지대로, 공고하고 정의로운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당신의 시종일관한 정책을 귀중히 여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당의 헌신성과 공헌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제히-모라바공산당 전체 선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귀국인민의 리익을 위한 당의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이쎈조 필리프

2010년 2월 9일 **쁘 라 하**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김정일 동지께

친애하는 동지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우리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며 핵문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이 기회에 현대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바입니다.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인사를 드립니다.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에이.비.바르단

2010년 2월 10일 **뉴 델 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김정일 각하께

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기념일인 2010년 2월 16일에 즈음하여 적도기념주당의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당원 오비앙 니게마 트바쓰고와 저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에게 가장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김정일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정치적안정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사상적 및 제도적차이를 초월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전적인 헌대성을 표시합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적도기념주당 총비서 필리베르도 누푸푸투 니게마

2010년 2월 12일 **말 라 보**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김정일 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형제적인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번영하는 하나의 조신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따쥐끼스판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웨.샤브돌로브

2010년 2월 15일 **두 산 베**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

저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지도부와 전체 당원들과 그리고 전체 브라질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영웅적 조선인민이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저는 당신께 우리 두 당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되어가고있다는것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관계가 계속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결심을 표명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 만세!
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위원장 세르지우 루벤스 데 아라우주 포레스

2010년 2월 16일 **싼 뽀울로**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위대한 명철인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따뜻하고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은 전체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위대한 령도자, 장군의 귀감이시며 세계제국주의의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정의롭고 진보적인 사회제도와 인민정체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하신 영웅적인 조선인민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새로운 위대한 성과들을 이룩하실것과 당신을 통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선의, 번영이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두 당사자의 전통적인 형제적인협조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에 부합되게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베.엔.씨모넨코

2010년 2월 16일 **끼 예 브**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

친애하는 동지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디아공산당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당신께 따뜻한 인사를 드려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디아공산당 (맑스주의)은 조선로동당과의 형제적유대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당신의 령도밑에 우리 두 당사자의 관계가 강화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디아공산당 (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프라카쉬 카라트

2010년 2월 17일 **뉴 델 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여기에는 김형준 외무성 류홍제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과 학교비문사찰사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와산동-릉성사이 도로화장공사의 날에 남긴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김진명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김책공업종합대학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가 8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백민형 김책공업종합대학 당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49 (1960)년 3월 9일 대학을 현지도하시며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의 요구에 맞게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더 빨리 키워내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학의 전반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 잘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연설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잘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제하는 수령님께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로 키우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제를 철저히 세우고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대학의 교육사업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역사적과업이 완수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더 잘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한 역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후에도 대학을 여러차례 찾으신다고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가갈 길을 명시해주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역사적과업이 완수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더 잘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한 역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후에도 성과를 거두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대학이 혁명성이 강하고 산지식을 소유한 많은 민족기술인재들을 키워내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제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공동노력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조,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호소따라 당창건 6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번영의 해로 빛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향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의 리익을 위하시는 마음에서

1959년 5월 12일, 나는 향일무장투쟁전적지답사단의 요정에 의하여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1933년에 내가 랑수천자에 있을 때 한 중국로인네 도끼를 잃어버리고 끝내 찾아드리지 못하였는데 이번이 가면 그 로인을 꼭 찾아서 다시한번 사과해주오. ...

오랜 세월이 지나간 오늘까지도 한 로인의 도끼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으니 그이,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잃어버리고 찾아드리지 못한 일을 이렇듯 고소판히 풀고 있지 못하시며 마음을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북받쳐오르는 감동을 짐작할수 없었다.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 20성상 그 어느날, 어느 한밤도 발전잠을 주무신 일 없이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워오신 그이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인민에게 충실하고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도록 유격대원들을 가르치시었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전적지답사를 떠나 나는 나의 머리속에는 그 도끼에 대한 사연이 다시금 새롭게 떠올랐다.

1933년 3월 상순경, 국내전 출부대를 친솔하시고 황계산으로 나오시다가 랑수천자에 머물러계실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만강가에 있는 한 중국로인의 집에 류숙하고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체 대원들에게 주둔구역 인민들의 일을 자기 집일처럼 도와주며 땀수룩 돌에게 베풀 끼치지 말라고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아침이면 주인집의 로인네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몸소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시었다. 도끼를 드시고 두만강에 나가 얼음을 까고 물까지 길다가 독에 가득 채워놓곤 하시었다.

하루아침에는 튜블리 추워서 물구멍에 두터운 얼음이 얼어붙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도 물을 길기 위하여 도끼를 드시고 강가에 나가시어 얼음을 까고계시었다. 그런데 얼음을 거의다 꺼내려왔을 때 도끼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가 얼음구멍에 빠져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얼음구멍을 더 넓게 뚫고 장대팔에 갈구리를 매여가지고 강물을 더듬으시었으나 물이 깊어서 좀체로 찾을수가 없었다.

보통생각으로는 집주인네 일을 성심으로 해주다가 그렇게 된 일이니 할수 없다고 단념할수도 있는 일이었건만 그이께서는 도끼를 찾으시려고 계속 애를 쓰시었다. 강가에 나와 함께 도끼를 건지려던 대원들이 주인에게 값을 치르어드리자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그이께서는 아무리 값을 많이 주어도 자기의 손때묻은 물건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어떻게 주인에게서 멀어질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좀체로 단념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강물에 묻힌 도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는수없이 주인집로인에게 도끼값을 후히 드키게 하시면서 아침이면 주인집의 로인네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몸소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시었다. 도끼를 드시고 두만강에 나가 얼음을 까고 물까지 길다가 독에 가득 채워놓곤 하시었다.

하루아침에는 튜블리 추워서 물구멍에 두터운 얼음이 얼어붙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도 물을 길기 위하여 도끼를 드시고 강가에 나가시어 얼음을 까고계시었다. 그런데 얼음을 거의다 꺼내려왔을 때 도끼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가 얼음구멍에 빠져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얼음구멍을 더 넓게 뚫고 장대팔에 갈구리를 매여가지고 강물을 더듬으시었으나 물이 깊어서 좀체로 찾을수가 없었다.

보통생각으로는 집주인네 일을 성심으로 해주다가 그렇게 된 일이니 할수 없다고 단념할수도 있는 일이었건만 그이께서는 도끼를 찾으시려고 계속 애를 쓰시었다. 강가에 나와 함께 도끼를 건지려던 대원들이 주인에게 값을 치르어드리자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그이께서는 아무리 값을 많이 주어도 자기의 손때묻은 물건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어떻게 주인에게서 멀어질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좀체로 단념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강물에 묻힌 도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는수없이 주인집로인에게 도끼값을 후히 드키게 하시면서 아침이면 주인집의 로인네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몸소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시었다. 도끼를 드시고 두만강에 나가 얼음을 까고 물까지 길다가 독에 가득 채워놓곤 하시었다.

하루아침에는 튜블리 추워서 물구멍에 두터운 얼음이 얼어붙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도 물을 길기 위하여 도끼를 드시고 강가에 나가시어 얼음을 까고계시었다. 그런데 얼음을 거의다 꺼내려왔을 때 도끼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가 얼음구멍에 빠져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얼음구멍을 더 넓게 뚫고 장대팔에 갈구리를 매여가지고 강물을 더듬으시었으나 물이 깊어서 좀체로 찾을수가 없었다.

보통생각으로는 집주인네 일을 성심으로 해주다가 그렇게 된 일이니 할수 없다고 단념할수도 있는 일이었건만 그이께서는 도끼를 찾으시려고 계속 애를 쓰시었다. 강가에 나와 함께 도끼를 건지려던 대원들이 주인에게 값을 치르어드리자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그이께서는 아무리 값을 많이 주어도 자기의 손때묻은 물건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어떻게 주인에게서 멀어질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좀체로 단념하지 않았었다.

박영순

간 한자리에 모여앉으면 그 이야기 해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깊은 뜻을 받들고 우리 향일유격대는 그 어떠한 곤난과 역경속에서도 그이의 가르침대로 인민의 리익을 생명을 같이 존중하여 여겼으며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철칙한 사상을 가지고 적들과 싸웠던것이다.

그때의 수많은 사실중에서 나는 우리 후방부대가 대전차 왕버퍼에 있던 1935년 겨울에 있는 일을 다시금 회상하게 된다.

우리는 그곳에서 밀영을 지을 과업을 맡았었는데 그때 우리는 도끼 하나 없는 빈손이었다. 하는수없이 부근에 있는 단 한집뿐인 농민의 집으로 도끼를 빌려려 갔었다. 그런데 조선농민의 집인 그 집에는 도끼는 없고 큰 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빌려려 왔었다. 우리는 할수없이 그 큰 자기를 빌려려다가 나무를 다듬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나서 자기를 돌려주려고 살펴보니 널의 한구멍이 가 떨어져있었다.

우리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우리는 값을 치르어준다고 해 보았으나 값을 치르어준다고 하면 그 로인이 어찌 가서 그런 자기를 구하겠는가.

호미 하나를 버려려고 하여도 100여리길을 가야 하는 이곳에서 향차 눈이 허리를 넘는 겨울을 대신할수 없었었다.

어찌 나는 한참동안 생각하던 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본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말에 동무들은 모두 나를 보며 의아해했다.

그들이 의아해하는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었다.

도끼조차 없어서 남의 자기를 빌려다가 집을 지어야 했던 우리가 무엇으로 자기를 본래대로 고쳐놓겠는가.

자기를 만들려면 우선 강하고 좋은 쇠붙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말할수 있게 불을 피우려면 풍동이 있어야 하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지고있던 도구로는 풀칼 하나와 망치, 집게밖에 없었다.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적당한 방법이 나서지 않아서 우리는 자체로 자기를 본래대로 만들어놓는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니 귀머지 자기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줄수는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모여앉아서 더 깊이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풀칼로 날을 붙이면 잘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에 우리 아버지가 버림질을 할 때에 여러번 그렇게 하는것을 보았기때문이다.

우리는 풀칼을 절반 잘라서 그 하나로써 자기를 달고 다른 하나는 남겨두었다가 무기수리를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성수가 나서 우등불에 자기를 달고 풀칼 반토막을 달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풍구대신으로 여러 동무들이 입으로 불을 불어보았으나 바람이 세지 못하여 불길에 잘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리대를 꺾어다가 여럿이 입에 물고 불어대니 제법 불길이 잘 이는것이였다.

우리들은 한밤중까지 신고를 하여 끝내 자기를 붙이는데 성공하였다.

다음에는 그것을 물에 담그고 쇠를 강하게 띄워가지고 절반 남은 풀칼로 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쉽게 뒤편다가 풀칼은 절반만 남았기때문에 좀처럼 날을 세울수가 없었다.

둘러주기로 약속한 날도 되었으며 이날이 시작에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생활의 구실구실까지 보살피시며 미제에 의하여 겪고있는 남방평민들의 불행에 대한 심리로 잠 못 이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일하며 생활하는 행복을 생각할 때 마다 나는 그이처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분투할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우리는 비로소 후련한 마음으로 자기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 돌려주었다.

우리는 자기를 달고 고친것은 주인에게 말하였으나 밤새워 고친것이 야기는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 일을 후에 알게 된 자귀주인인 그 로인은 두근두근 이 일을 말하면서 우리 유격대의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 도와주시곤 하였다.

이렇게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항상 인민의 리익을 제일중하게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했었던것이다.

바로 그러하였기때문에 우리 유격대는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헌신적인 협조를 받을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것으로써 인민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그대로 받들었다고 말할수 있었겠는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 로인의 도끼를 달고 돌려주지 못한 일을 잊지 못하는는 그이의 심정을 생각할 때 나는 가슴우뚝우뚝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고스란히 바쳐오셨으며 이날이 시작에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생활의 구실구실까지 보살피시며 미제에 의하여 겪고있는 남방평민들의 불행에 대한 심리로 잠 못 이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일하며 생활하는 행복을 생각할 때 마다 나는 그이처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분투할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장시

행복한 우리 여성들의 노래

김진주

여성이라면 어머니라면 누구나 소중히 안고있더라

이 공장터전을 잡아주러 오셨던 사연같은 그날이

그 모습 오래오래 보고싶으시여 한장 또 한장 사진까지 찍어주시던

전선중의 최전선으로 보시었나니 그 전선의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우리 삶의 태양이 되고 우리 행복의 뿌리가 된 아, 그 사랑은

꾸렸다고 한그루한그루 나무들에 교여있는 여성들의 그 간지고 알뜰한 마음에서

그 영광의 순간에도 알지 못했어라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정이 우리들을 기다리고있는지

그 소원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한생 자식들을 위해 사는 어머니들이 그 마음 뜻에 담으려나

그날은 공화국을 선포한지 한달만인 10월 얼마나 크고 큰 중요한 일들이 많고 많았던가

약산동대 붉게 피는 진달래처럼 구룡강의 그 맑고 깨끗한 흐름처럼

멀고먼 북반의 미끄러운 산밭을 오르시며 자강도는 잠업을 해야 잘산다고

그 사랑 그 촉복속에 얼마나 많은 여성영웅들이 태어났던가

그 모습속에 다 보여오누나 한둘기 또 한둘기 인재를 쌓으며

공원이 다 끝났을 때에는 아름답치게 받아안던 선물 아, 그 선물을 마련하시려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 혁명의 한족수레바퀴를 떠미는

오늘의 공장이 일떠선 이 자리에 걸음 멈추신 수령님

그 사랑 들우에도 꽃을 피워 들에서 실을 뽑는 꿈같은 기적을

눈부러 아득히 펼쳐진 하얀 목화밭을 보시면

그날 우리 장군님 얼마나 그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모습속에 다 보여오누나 한둘기 또 한둘기 인재를 쌓으며

세상에 나라가 많고 정도자가 많아도 어머니들의 소원

그이의 자욱자욱을 내 뜨겁게 안아보며 행복한 여성들의 노래

이 자리에 걸음 멈추신 수령님 이 자리에 걸음 멈추셨어라

그 사랑 들우에도 꽃을 피워 들에서 실을 뽑는 꿈같은 기적을

그날도 전진길 달리고달려 그이 이르신 곳은 최전선고지

그날 우리 장군님 얼마나 그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모습속에 다 보여오누나 한둘기 또 한둘기 인재를 쌓으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봄물이 오르는듯 푸른 기운이 떠도는 나무사이로

뜨거운에 젖어 걱정에 젖어 우리 어머니

인민들의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여 할 새해의 첫 아침에조차

그날도 전진길 달리고달려 그이 이르신 곳은 최전선고지

자신은 혼술이 다 닳은 야전복을 입으시고도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진정 장군님품은 우리 여성들의 천만소원을 다 꽃켜

유정한 기대소리 너인들의 노래소리가 마음 이끌러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수령님의 손길아래 은 나라 그 어머니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빨간 머리수건 가쁜히 쓰고 봄꽃마냥 밝은 웃음속에서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수령님의 손길아래 은 나라 그 어머니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내 마음도 직포공이 된듯 소중히 천을 쓸어보니

작은 몸 가리워줄 한조각 천도 없이 자식들을 문뜰으로 내보내지 못하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제스룩한 삼복칠 무더위를 헤치고

백두산일가의 뜨거운 녀련안고 태어난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야전차는 폭양에 달아오르고 장군님 웃기는 땀에 젖었건만

못 잊을 그날 추억같은 그날을 생각하시며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금시라도 색갈고운 옷이 되어

장군님마음속엔 언제나 계셨어라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꽃무늬 고운 천을 보시고 또 보시는 장군님 그 마음

장군님마음속엔 언제나 계셨어라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우리 수령님 그리운 어머니와 함께

장군님마음속엔 언제나 계셨어라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3. 8 국제부녀절 100돐 기념 공연 진행

3. 8 국제부녀절 100돐 기념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녀성독창과 방창 《도천리의 5월단오》, 바이올린독주와 첼로제주 《장군님 따르는 마음》, 독무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남성독창 《사랑하시라》, 케릭교예 《남녀 2인조형》, 《비단짜는 처녀들》, 무용 《박판무》, 《장교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으며 향일의 녀투사들의 강직한 혁명적신념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올려주었다. 합창 《강성부흥아리랑》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세에서 사회의 당당한 주인,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선군조선녀성들의 열의를 잘 보여 주었다.

장내에는 불멸불류의 애국 헌신으로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주시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우리 녀성들이 자기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효모의 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혁명, 녀성해방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정성동지와

《조선녀성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혁명의 한족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어나갈 우리 녀성들의 의지를 반영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조선녀성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혁명의 한족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어나갈 우리 녀성들의 의지를 반영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당과 국가 간 부들과 근로단체 책임일꾼들, 녀성일꾼들, 녀성로력혁신자들, 녀명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녀성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보았다.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공명무대에는 남성독창 베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어머니》

수령님도 빨찌산지철을 그려보시

이 세상에서 어머니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의 걸우에 그 아이 비날론만 쏟아져나왔던가

다 보여오누나 우리 혁명의 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가장 은혜롭고 따사로운 품 그 운명 그 미래까지 다 보살펴주는



첨단돌파의 기수가 되리

국가과학원의 녀성과학자들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녀성들은 혁명파 건설을 띠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3. 8 국제부녀절 100돐을 맞으며 우리는 미려한 녀성과학자들을 만나보기 위해 국가과학원을 찾았다.

이날 우리는 여러 연구소들을 돌아보았는데 들리는 곳마다에서 녀성과학자들에 대한 연구집단의 자랑을 듣게 되었다.

그렇만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국가과학원은 력사적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한 녀성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지난 10여년사이에만도 국가과학원의 녀성과학자들속에서는 많은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가 나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애국의 신념을 안고 한 생도록 과학탐구의 길을 찾았으며 절으며 나라의 과학발전과 경제건설에 적극 공헌하고있는 국가과학원의 훌륭한 녀성과학자들속에는 유색금속연구소의 박사 현영리동무도 있고 생물분리 버섯연구소의 박사 한경화, 산림과학분원의 박사 허금관동무들도 있다.

같은 맹세를 안고 살며 일하는 우리의 미려한 녀성과학자들이 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가 더욱 빛나는것이 아니라 하고 생각하며 우리는 미생물학연구소에도 둘러있다.

현관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이곳 일꾼은 여러 연구소들중에서도 특히 미생물학연구소에 녀성과학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연구실과 실험실들은 흰 위생복을 깨끗이 차려입은 녀성과학자들이 많이 오가고있었다.

그들의 사색집은 눈빛이며 걸음에서는 과학탐구의 세계에 한껏 몸을 잠근 과학자의 진지한 자세가 엿보였다.

우리는 일용품연구소에서 뜻깊은 올해 경공업과 농업에 다 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인민경제발전에서 크게 기여할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피

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녀성과학자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그들중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머니수령님과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라는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었다고 실장 량희동무도 있었다.

지난 수십년간 과학연구부문에서 일하면서 나라의 식료공업과 일용품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한 그는 지금도 청춘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뛰고있었다.

중견에도 새로운 연구성과를 도입하기 위해 수도의 어느 한 식료공장에 다녀온 그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우리 녀성과학자들이 이처럼 과학탐구의 길에서 보람찬 삶을 꽃피워갈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우리 녀성과학자들의 투쟁과 삶의 목표는 첨단들의 기수가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쌓은 실력과 불같은 애국열정으로 첨단과학의 앞장에 섬으로써 선군시대 녀성과학자들의 슬기와 기상을 다시금 떨칠것입니다.》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가정

본사기자 리남호

체제대결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역행위

최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 피괴들의 체제대결행동이 전례없이 악랄한 단계에 이르렀다. 보수세당은 각종 모략기구들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으며 체제대결, 북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자들의 극악한 체제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대립과 불신의 깊은 날을 따라 깊어가고있으며 북침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있다.

조선령 사태로부터 출발하여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책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면서 온 민족이 떨쳐나 대결과 전쟁을 추구는 대결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절추를 내릴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남조선에서 전례없이 광란적으로 벌여지고있는 체제대결책동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반역행위이다.

얼마전 피괴무총리 정은찬은 《통일국가의 리념이나 형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역도는 그것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당의 단일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내놓고 버렸고있다.

이 너두리는 우발적인것이 결코 아니다. 반역도배는 최근 그 무슨 《군변사태》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북침모략각본인 《비상통치계획》이라는것을 비밀리에 작성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당국의 이른바 정책연구기관들이라고 하는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안보전략연구소》 등과 그 속속들은 《군변사태》에 대한 《통일대체탐색연구》라는 불순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배포하는 가하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에 따른 모략방송선전물까지 제작하고있다.

한편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 반공화국비라들을 대방살포하면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모독하고 혈통을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그러한 속에 피괴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결코들며 《선제타격》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피괴대당이 들고나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협력사업들을 활성화해나가기려는 온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흉계의 발로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의 체제대결책동은 그들이 지금껏 감행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최절정이다.

력대로 남조선보수세당은 말로는 《대화》와 《평화》에 대해 골팔 떠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며 외세의 힘을 빌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우악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꾀변이었다.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떠들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미쳐달린 《유신》 독재자의 망과그 뒤를 이어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투쟁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면서 북남대결에 기세를 부린 《5, 6공》 군부장관들의 반통일행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운운하며 북남관계에 대화도 협력도 없는 완전적대세태에 몰아넣은 《문민》 통치배들의 죄악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음모적방면으로 권력을 탈취한 《실용》 통치배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체제대결소동은 이전 독재 《정권》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훨씬 통가하고있다.

남조선의 《실용정권》은 등장한 이후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길을 밝힌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체제대결과 북침을 위한 사상 류례없는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다. 여기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총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대결을 격화시켜왔다. 보수세당은 이미 저들의 색이빠진 미국의 심신지주체제를 공화국북반부으로 확대할것을 노린 그 무슨 《북북개발계획》이라는것을 꾸며내며 있으며 남조선집권자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저들의 《꿈이자 목표》라고 거리 겁없이 떠벌어댔다.

《제도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피괴들의 망상은 지금 절정에 달하고있다. 도저히 있을수 없는 그 무슨 《군변사태》라는것이 반역무리들속에서 더욱 더욱 요란히 반역무리들속에서 남조선의 《대북판권기관》들과 《국책연구기관》들이 총발동되어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로골적으로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대결책동을 대규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보수세당의 체제대결책동이 위험천만성을 벗어나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최절정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체제대결책동의 종착점은 북침전쟁이다.

남조선피괴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

악하는것은 명백히 우리의 제도를 무력침공의 방법으로 전복하기 위한 북침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무슨 《군변사태》에 대비하여 꾸며낸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9》가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북침전쟁도발모를 실현하기 위해 반역도당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들을 십진의 분위기에서 광범적으로 벌리었으며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고 각종 함선들과 미사일, 전투기들을 비롯한 최신공격무기와 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첨단무기들을 자체로 개발, 배치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8일부터는 미제침략군과 함께 남조선전역에서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극단적인 체제대결책동에 말미암아 관계의 현재같은 지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북침전쟁발발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짙어가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의 체제대결책동이 빚어낸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남조선보수세당의 반민족적인 체제대결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감히 부정할수 없는 체제대결책동에 미쳐달린자들을 그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시대와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고야말 것이다.

은 정 철

위험천만한 북침핵선제타격연습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두되는 경고와 해대거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8일부터 북침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18일까지 감행되는 이 전쟁연습에는 남조선강경 미제침략군 1만여명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미군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고 피괴군의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들과 민간 무력까지 동원되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이 온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여 또다시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는데 대해 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끝내게 개시한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킴으로써 북침핵전쟁도발선에 불을 지르려는 용감 못할 범퍼행위이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아량있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의연히 침어하고 긴장하다. 피괴들은 그 무슨 《원칙고수》의 간판만을 반동질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다. 그들은 말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뒤끝방에서는 그 무슨 《군변사태》를 운운하며 《작전계획 5029》와 《비상통치계획》, 《통일대체탐색연구》와 같은 도발적인 북침각본들을 편이 꾸며내는 등진례없는 북침광기를 부리고있다.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파괴하면서 대결전쟁소동에 미쳐달린 남조선피괴들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와 접촉들이 모조리 결렬상태에 빠지고 쌍방에서의 불신과 긴장은 극도로 격화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연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광범적으로 벌려놓은것이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도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이번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상투수법대로 그 무슨 《방어능력개선을 위한 년례적인 훈련》이라고 광고하며 내외론을 오도하고있다. 하지만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이전의 연습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는 기존의 북침전쟁연습각본인 《작전계획 5027》보다 공격성이 훨씬 강화된 《신원합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까지 적용되고있다. 이에 따라 연습의 기본각본은 공군무력과 특수전병력을 리용한 선제공격작전으로 우리의 전략수단들을 《정밀타격》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지상무력을 《북진》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습내용도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미사일방어작전》, 《평양 점령을 노린 시가전》과 지휘거점의 타격과 같은 공격작전과 우리 공화국지역에서의 《민군련합작전》 등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이런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어찌 《방어능력개선을 위한 년례적인 훈련》으로 볼수 있었는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무엇보다도 합리화할수 없는 철두철미 북침핵선제타격연습이다.

제반 사실들은 우리의 적시하며 침략하려는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무모한 단계에 들어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이 엄청난 사태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단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우리를 조급이라도 건드리는데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하듯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 있다.

우리는 호전광들이 감히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맞받아나가 침략의 무리들을 모조리 짓무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숙원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의 혁명적의를 무마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송 영 석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호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2월 28일 결의문을 발표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결의문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10년간 온 겨레가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한 고고한 투쟁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 공동선언발표 10년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기려는 온 겨레의 굳센 통

일의지와 기개를 힘있게 파시하고 결의문을 밝혔다.

결의문은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성과를 말살하려는 당국의 책동이 날로 엄청난 단계에 이르렀고있는 오늘 각계층 민중이 힘을 모아 친미보수세력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분쇄하고 남북관계개선의 길을 적극 열어나가며 통일운동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북공동선언지시체력을 광범위하게 결속하고 확대하여 6.15 세력과 반6.15 세력, 민주와 파쇼와의 대결에서 통일민주세력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결의문을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적극적이고 과감

한 실천으로 이번 《지방자치선진기》에서 반통일세력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할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참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미군은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호전세력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킴으로써 외세가 없는 평화로운 세세상을 건설할것이라고 결의문을 강조하였다.

올해는 범민련정년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결의문은 단체의 모든 성원들이 범민련의 자랑스러운 투쟁정통을 이어 통일봉투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가 3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군사연습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에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년례적인 군사연습》의 간판밑에 8일부터 남조선에서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는것을 공회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결코오는

《회담》이니 뭐니 하며 분주함을 피우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패권을 쥐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모두가 조선반도에 정한 평화와 안정이 될것을 바라고있고 하면서 성명은 이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호전광들이 무모한

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

끼르기즈스탄고통련이 3일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걸어치우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이 8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려고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남조선강경 미군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 남조선피괴군의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들뿐아니라 민간무력까지 동원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선제공격준비라고 성명은 단호하게 평가하였다.

성명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책동은 조선반도비핵화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립장을 국제사회에 에스도 드러내놓으려고 한

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또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이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침략정책실현의 도구로 나서서 기세를 부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끼르기즈스탄고통련은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분별있게 처신하며 단호히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책동을 당장 걸어치우야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강조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가 2월 28일 결의문을 발표하여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결의문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민족의 자주, 평화통일업념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권》이 집권한 후 총계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전진정적으로 치닫고 당국의 친미대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고 하면서 결의문은 민중이 바라던 6.15시대는

발성하였다.

성명은 6 000만원의 빛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오다가 하루하루 생을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을 오도하는 거짓말이며 반역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에서 현 《정부》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경제형편의 악화, 허탈하는 사회악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도란에 빠지고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세방에서 살고있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아들이 잠든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았다. 48살 난 이녀성은 아들의 치료비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것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이런 결단을 내렸던것이다.

지난 1월 16일 경성남도 광산시에서 생활이 시달리던 한 내성이 자기의 세 딸을 모두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성명은 6 000만원의 빛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오다가 하루하루 생을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을 오도하는 거짓말이며 반역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에서 현 《정부》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경제형편의 악화, 허탈하는 사회악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도란에 빠지고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세방에서 살고있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아들이 잠든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았다. 48살 난 이녀성은 아들의 치료비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것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이런 결단을 내렸던것이다.

지난 1월 16일 경성남도 광산시에서 생활이 시달리던 한 내성이 자기의 세 딸을 모두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체스교슬로벤스교공산당 중앙위원회 성명 발표

체스교슬로벤스교공산당 중앙위원회가 4일 미제와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조선강경 미제침략군 1만여명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며 남조선피괴군 지어 민간무력까지 동원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

사연습은 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과정을 저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합의를 허용할수 없다. 또한 이 군사연습은 로골적인 전쟁도발행위로서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

주요하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마련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

체스교슬로벤스교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미국이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끝장내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8일부터 감행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 《유사시》 미중원군의 신속한 투입과 협동작전으로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그들의 침략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것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내세의 흐름을 따라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책동을 당장 걸어치우야 할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위기에 몰아가는 범적책동이라고 담화는 단호하게 평가하였다. 담화는 이를 통해 조선반도비핵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며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그들의 침략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것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내세의 흐름을 따라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책동을 당장 걸어치우야 할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실용》독재의 2년 (4)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린 반민주, 반인권적망동

《실용정권》은 비록 간판은 새로와도 독재적인 성격과 폭압정책, 10년까지 저지른 파쇼적잔행에 있어서 과거의 군부독재와 다를바가 없다.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과거 독재시대를 고스란히 되살린것은 피괴당국이 지난 2년간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의 하나이다.

파쇼독재집단으로서의 《실용정권》의 정치는 현 집권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어 바쁘게 이로 인한 한자가 계속 생겨나고있다.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감염자수는 6 120명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1 084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한다.

또한 핵력발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한중도 못되는 복원속속들이 돈을 몰수하는 등 부패방랑한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돈밖에 모르는 반인민적인 보전제도로도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사람들의 병을 진찰하기에 앞서 돈이 천정부지로 뛰어들고있어 늙은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65살이상 노인들의 치매증발생률은 해마다 올랐고 약값이 치솟고있어 많은 노인수는 44만 5 000여명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증가속도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65살이상 노인 10명중 1명정도가 치매증을 앓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치매증을 앓는 노인

파쇼정권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며칠만 군부독재시기의 파쇼폭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무슨 독재 《정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과거 독재시대를 고스란히 되살린것은 피괴당국이 지난 2년간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의 하나이다.

파쇼독재집단으로서의 《실용정권》의 정치는 현 집권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어 바쁘게 이로 인한 한자가 계속 생겨나고있다.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감염자수는 6 120명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1 084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한다.

또한 핵력발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한중도 못되는 복원속속들이 돈을 몰수하는 등 부패방랑한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돈밖에 모르는 반인민적인 보전제도로도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사람들의 병을 진찰하기에 앞서 돈이 천정부지로 뛰어들고있어 늙은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65살이상 노인들의 치매증발생률은 해마다 올랐고 약값이 치솟고있어 많은 노인수는 44만 5 000여명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증가속도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65살이상 노인 10명중 1명정도가 치매증을 앓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치매증을 앓는 노인

사회심리홍심에 일선경찰서들이 《전통지지세력부원방안》이라는것까지 내비쳤다.

이때 따라 파쇼정권들은 그 예로 《초강대중》과 《80년대선진사업》을 떠벌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다치는데로 방패로 쥘고 끈봉으로 때려눕히다 못해 쓰러진 연약한 처녀대 학생까지 문화로 짓밟고 지어 유모차를 끌고가던 주부들에게 《물레》를 쓰이는데는 몹시러치는 인권유린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집권세력은 남조선인민들의 초탈시위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하고도 모자라 《특수인부대중》을 비롯한 한 구부보수세력파들까지 내놓아 무자비한 인권을 감행하였다. 불과 3개월 남짓한 사이에 서울에서만 1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것이었다는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파쇼당국의 야수적인 탄압행위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각국가 《사회적질서》(유신)이나 《5공》 군사독재시대로 퇴행하고있다는가. 그 올흔에 차서 정규 전투병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 요직들에 파쇼적기밀이 빼속까지 들어간 국유기업체들을 들여앉혔다. 파쇼당국은 과거에 대한 탄압공세의 전폭적이었다. 집권초기까지만 하여도 《민중의 머슴》이니, 《서민정치》니 뭐니 하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해줄것처럼 너스레를 떨던 피괴들은 지난 2008년 미국과의 굴욕적인 남조선전지역의 공안, 형사부정당들을 《대검찰청》에 불러들여 전례없는 탄압시정을 내렸던 《검찰총장》도 보수세력들을 굶어오 초탈시위투쟁을 약

처에서 반 《정부》방의 투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각계층 인민들의 거세한 반 《정부》투쟁으로 국민의 위기에 풀린 보수세력기들은 9기부터의 출로를 파쇼폭압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반 《정부》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진보적인 단체들에 대한 전면말살공세를 개시하였다. 남조선당국의 탄압의 마수는 범민련 방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6.15청학련대, 통일련대, 민주로총, 참예련대 등 진보세력 전반에 뻗어있고있다. 《자유무연협정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로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행위시위대중》로 규정하고 온갖 악랄한 탄압을 가해온 피괴당국은 과거의 파쇼적인 《준법서약제도》를 되살리고 시인단체들에 《정부보조금》을 미끼로 앞으로 《불법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 《자유무연협정지지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을 비난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을 철회하고 그것으로도 성취하지 않자 악랄한 《정보연습》을 개입시켜 그 단체들에 대한 각계의 후원자 지원에 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버틸것을 약속했다. 이번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전교조》를 《천부파괴》로 몰아대면서 음모, 약으로 탄압해온 파쇼도당은 이 단체성원들이 지난해 당국의 반민주적악행과 반통일적 유색정책에 항거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위법》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핵심성원들을 해임, 《직무정지》시키기로 결정하고 1만 7 000여명의 교원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전례없는 횡포를 저질렀다.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민주주의 실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귀와 임금문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반 《정부》투쟁 사세를 명백히 하고있는 《전국공무원로조》 성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가하였다.

이런 대규모적인 탄압책동은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로서 민주와 인권의 폐허우에 과거 군부독재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리고 총탈폭력을 동원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실용》독재세력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한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권》은 사회적악을 적으로 삼는 폭력집단이다. 민주주의를 진압, 철폐하는 파쇼 《정권》이다. 독재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일제 자갈이 물러지고 팔에 포승이 둘러쳐지며 말죽이는 죽어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썼다.

그렇다. 《실용》독재는 곧 과거 군부독재의 재탄생이다. 반역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독재와 폭압에 광분하는 현 피괴집권세력이야말로 이전 군부독재자들도 허를 찌른 극악한 파쇼정권이다.

본사기자 심 현 영

《실용》 통치가 가져온 비참한 현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저들의 집권 2년간 그 어떤 사회적진보나 발전이 이루어지거라도 한것처럼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을 오도하는 거짓말이며 반역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에서 현 《정부》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경제형편의 악화, 허탈하는 사회악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도란에 빠지고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세방에서 살고있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아들이 잠든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았다. 48살 난 이녀성은 아들의 치료비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것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이런 결단을 내렸던것이다.

지난 1월 16일 경성남도 광산시에서 생활이 시달리던 한 내성이 자기의 세 딸을 모두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들이 늘어나는것을 둔주머니를 불리는 좋은 기회로 여긴 범민들에서 치매증진로비를 대폭 높여 늙은이들은 병원문전에 가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더욱 높아가는 공포와 불안

남조선에서는 좀처럼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이 계속 퍼져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있다.

특히 《죽음의 병》으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한자가 계속 생겨나고있다.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감염자수는 6 120명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1 084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한다.

또한 핵력발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한중도 못되는 복원속속들이 돈을 몰수하는 등 부패방랑한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돈밖에 모르는 반인민적인 보전제도로도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사람들의 병을 진찰하기에 앞서 돈이 천정부지로 뛰어들고있어 늙은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65살이상 노인들의 치매증발생률은 해마다 올랐고 약값이 치솟고있어 많은 노인수는 44만 5 000여명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증가속도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65살이상 노인 10명중 1명정도가 치매증을 앓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치매증을 앓는 노인

파쇼정권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며칠만 군부독재시기의 파쇼폭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무슨 독재 《정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과거 독재시대를 고스란히 되살린것은 피괴당국이 지난 2년간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의 하나이다.

파쇼독재집단으로서의 《실용정권》의 정치는 현 집권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어 바쁘게 이로 인한 한자가 계속 생겨나고있다.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감염자수는 6 120명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1 084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한다.

또한 핵력발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한중도 못되는 복원속속들이 돈을 몰수하는 등 부패방랑한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돈밖에 모르는 반인민적인 보전제도로도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사람들의 병을 진찰하기에 앞서 돈이 천정부지로 뛰어들고있어 늙은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65살이상 노인들의 치매증발생률은 해마다 올랐고 약값이 치솟고있어 많은 노인수는 44만 5 000여명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증가속도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65살이상 노인 10명중 1명정도가 치매증을 앓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치매증을 앓는 노인

파쇼정권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며칠만 군부독재시기의 파쇼폭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무슨 독재 《정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과거 독재시대를 고스란히 되살린것은 피괴당국이 지난 2년간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의 하나이다.

파쇼독재집단으로서의 《실용정권》의 정치는 현 집권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어 바쁘게 이로 인한 한자가 계속 생겨나고있다.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감염자수는 6 120명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1 084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한다.

또한 핵력발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한중도 못되는 복원속속들이 돈을 몰수하는 등 부패방랑한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돈밖에 모르는 반인민적인 보전제도로도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사람들의 병을 진찰하기에 앞서 돈이 천정부지로 뛰어들고있어 늙은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65살이상 노인들의 치매증발생률은 해마다 올랐고 약값이 치솟고있어 많은 노인수는 44만 5 000여명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증가속도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65살이상 노인 10명중 1명정도가 치매증을 앓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치매증을 앓는 노인

사회심리홍심에 일선경찰서들이 《전통지지세력부원방안》이라는것까지 내비쳤다.

이때 따라 파쇼정권들은 그 예로 《초강대중》과 《80년대선진사업》을 떠벌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다치는데로 방패로 쥘고 끈봉으로 때려눕히다 못해 쓰러진 연약한 처녀대 학생까지 문화로 짓밟고 지어 유모차를 끌고가던 주부들에게 《물레》를 쓰이는데는 몹시러치는 인권유린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집권세력은 남조선인민들의 초탈시위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하고도 모자라 《특수인부대중》을 비롯한 한 구부보수세력파들까지 내놓아 무자비한 인권을 감행하였다. 불과 3개월 남짓한 사이에 서울에서만 1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것이었다는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파쇼당국의 야수적인 탄압행위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각국가 《사회적질서》(유신)이나 《5공》 군사독재시대로 퇴행하고있다는가. 그 올흔에 차서 정규 전투병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 요직들에 파쇼적기밀이 빼속까지 들어간 국유기업체들을 들여앉혔다. 파쇼당국은 과거에 대한 탄압공세의 전폭적이었다. 집권초기까지만 하여도 《민중의 머슴》이니, 《서민정치》니 뭐니 하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해줄것처럼 너스레를 떨던 피괴들은 지난 2008년 미국과의 굴욕적인 남조선전지역의 공안, 형사부정당들을 《대검찰청》에 불러들여 전례없는 탄압시정을 내렸던 《검찰총장》도 보수세력들을 굶어오 초탈시위투쟁을 약

처에서 반 《정부》방의 투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각계층 인민들의 거세한 반 《정부》투쟁으로 국민의 위기에 풀린 보수세력기들은 9기부터의 출로를 파쇼폭압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반 《정부》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진보적인 단체들에 대한 전면말살공세를 개시하였다. 남조선당국의 탄압의 마수는 범민련 방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6.15청학련대, 통일련대, 민주로총, 참예련대 등 진보세력 전반에 뻗어있고있다. 《자유무연협정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로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행위시위대중》로 규정하고 온갖 악랄한 탄압을 가해온 피괴당국은 과거의 파쇼적인 《준법서약제도》를 되살리고 시인단체들에 《정부보조금》을 미끼로 앞으로 《불법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 《자유무연협정지지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을 비난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을 철회하고 그것으로도 성취하지 않자 악랄한 《정보연습》을 개입시켜 그 단체들에 대한 각계의 후원자 지원에 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버틸것을 약속했다. 이번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전교조》를 《천부파괴》로 몰아대면서 음모, 약으로 탄압해온 파쇼도당은 이 단체성원들이 지난해 당국의 반민주적악행과 반통일적 유색정책에 항거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위법》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핵심성원들을 해임, 《직무정지》시키기로 결정하고 1만 7 000여명의 교원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전례없는 횡포를 저질렀다.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민주주의 실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귀와 임금문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반 《정부》투쟁 사세를 명백히 하고있는 《전국공무원로조》 성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가하였다.

이런 대규모적인 탄압책동은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로서 민주와 인권의 폐허우에 과거 군부독재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리고 총탈폭력을 동원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실용》독재세력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한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